

■ 신년 인터뷰 강운태 광주시장

“호남 총리보다 중요부처 지역인재 써라”

인터뷰=홍행기 사회팀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 한 해를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상대회 등 각종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기업·정부와 협력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을 비롯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각종 대형프로젝트의 첫단추를 끼우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다음은 강 시장과 일문일답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한다. 호남정치 1번지인 광주의 시장으로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 또는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한 조건이 있다면 해달라.

▲초심을 잃지 말고 대통합을 비롯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해 왔으며, 결과적으



호남 표심놓고 활가활부 ‘후진 행태’

국립공원 무등산 새 구조물 설치안돼

로 지방의 낙후를 불러왔다.

두 번째는, 5+2광역경제권 구상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이 구상은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역불균형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호남 1대 영남 2’의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수도권 대 남부권 경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맞지 않다고 본다. 누구든 호남출신이 총리가 되면 정서적으로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다. 다만, 호남 총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부서에 호남을 잘 알고 또 애정을 지닌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는 것이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나 예산실장 자리 또는 산업의 발전을 다루는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등의 자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현 정부에는 지경부나 기재부, 국토해양부 등 중요 정책결정 부서에 호남출신 공직자가 거의 없다. 정부 정책은 국장과 1급 공무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관이 실무선에서 기안된 정책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직접 정책을 기안하고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실무 책임부서에 호남 인재가 고루 등용되는 것이 호남 총리보다 중요하다.

-지난 18대 대선 때 호남표심을 놓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 결과가 존중되고 보호받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 결과를 갖고 활가활부하는 것은 후진적인 행태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의 표심이 바로 호남의 민심이다. 광주의 표심은 그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광주와 호남은 가치중심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남북관계 복원 및 평화 교류 확대의 바람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 표심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의 표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도 영남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새누리당도 광주 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절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엉뚱하게 호남의 투표결과를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정당차원에서 서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주시정으로 돌아가자. 올 한해 광주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 하나.

▲미래를 위해 큰 사업도 추진하고,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형 행복 복지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나 2015국제디자인연맹총회를 유치하고, 올해 열리는 한상대회나 JCI아태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산업 측면에선 대기업 중심의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공약했던 것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 친환경 탄소중립도시조성사업도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프로젝트다. 올해를 이들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삼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 국립미술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전당 안이든 밖이든 국립미술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다만 전당 내에 들어서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 복합문화센터인 퐁피두 센터는 미술관과 음악당을 함께 갖춰 복합적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미술관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정부에서 전당 외부에 별도로 국립미술관을 만들어 줄까하는 의문도 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 들어설 시설 가운데 성격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창조원과 정보원 중 하나를 국립미술관으로 만드는데 지역 예술계의 총의가 모아졌으면 한다. 국립은 아니지만 전당 외부에 별도로 공립 또는 시립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나.

국립 미술관, 전당내에 조성 바람직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자신

▲확률은 예단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이고 멋지게 치르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번씩 대회를 치른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 한국은 한 번도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점이다.

-2015광주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은 온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어떻게 되여나.

▲현재로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점을 이해해 달라. 매우 민감한 이야기여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때가 되어 UN이 큰 틀을 만들면 세부협상 때 저도 북한을 방문해 상사시키겠다. 남북단일팀 구성은 정부의 방향성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돼 국익차원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한국이 대륙경제권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삼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교류협상은 불가피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시초가 바로 남북 단일팀 구성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은 광주시의 쾌거다. 하지만, 최근 무등산에 타워나 케이블카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알아봤는데, 예전에 조금 검토는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무등산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있는 구조물을 뺐내고, 이전하고, 통폐합할 때다.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고 그럴 때가 아니다.

/redplane@kwangju.co.kr

자치뉴스

동구, 일자리 만들기 5대시책 추진

광주시 동구가 올해 구민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 ‘2013 희망-FIVE’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2013 희망-FIVE’은 경제부서와 민원실에 각각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민, 구직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현장상담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신개념 프로젝트다. 또 사회복지업, 마늘기업, 협동조합 설립해 마을공동체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동구는 사회적기업과 마늘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컨설팅 제공과 함께 관내 문화 예술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산업이 최근 유력한 유망직종으로 부각됨에 따라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조선이공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관내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IT·광융합 기술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동구는 올해 유치한 일자리예산 56억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구, 시민감사관 16명 공개모집

광주시 남구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시민감사관’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2011년 3월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했다. 현 시민감사관 임기는 3월 8일 만료된다. 시민감사관은 위법한 행정사항이

나 공무원 비위 사실을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무모수 명예직이다.

남구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만 30세 이상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650-7383.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2세 4명

檢, 벌금 400만~700만원

일각선 ‘정식기소해야’ 지적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재벌 대기업 오너 2세 4명을 14일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각각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 그 일정이 국익·공익에 중요하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일정 취소·변경이 가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불출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23일 국감과 11월6일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외국 정상과 고위각료 면담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형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벌금액이 가장 많은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채택이 된 뒤 항공편 예약을 하는 등 도피성 출장 의혹을 살 만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오너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그동안 검찰이 기소유예하는 등 불기소한 선례가 많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발인들이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유통재벌 오너인 이들에게 고자 수백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하는 것이 어떤 처벌 효과가 있겠느냐며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기소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투자,경매,권리분석 아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원룸,상가,토지,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더 신뢰있고 더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성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 750평
- 건 물 : 1350평
- 용 자 : 20억~25억
- 매매가 : 40억원 (감정가 58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녹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둥 등 적합)
- ③ 세하동 서광구역 뒤 자연녹지(그린벨트) 도로 접 1천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가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